

# 주안에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10  
Oct. 2018  
Vol.6 No.10

- 교육부 할렐루야 나잇
- 주안에 배달부
- 목장모임 소감
- 사역국 / 칼럼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 ■ 제1기 한국 힐링캠프

유난히도 무더위로 힘들어했던 여름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높고 푸르른 하늘 아래로 살랑거리는 바람이 마음을 설레게 해주던 가을의 중턱에, 주안에교회는 고국땅을 향한 작은 사랑의 몸짓을 시작하고 있었다.

1년 남짓 기도로 준비하며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왔던 제1기 한국 힐링캠프가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3박4일 동안 경기도 광주의 장심리 수양관에서 진행되었다.

84명의 Seekers와 83명의 Supporters가 하나가 되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교감하였던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4면에 계속)

| 오희경 기자 |

제1기 한국 힐링캠프에 참석한 시커스들의 밝고 활기찬 모습

< 사진: 이광영 기자 >



170여명의 시커스들과 서포터스들이 제1기 한국 힐링캠프를 마치고 한 자리에 모였다. <사진: 양영 기자>

■ 할렐루야 나잇

## 할로윈은 가라... 자녀·부모들 함께 즐거운 가족잔치



지난 10월 31일 오후 6:30부터 9:30까지 벨리채플과 MP채플에서 Hallelujah Family Night 행사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10월 31이면 갖는 행사였지만 금년에는 특별히 잘 준비되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참가자 모두가 마음껏 즐기며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두 채플 모두 유치등부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학생 봉사자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예년 보다 두 배 이상 많이 오셔서 맛있고 풍성한 식사를 즐긴 후 16 가지 다른 부스에서 게임을 즐기며 교우들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캔디와 각종 선물들을 푸짐하게 받기도 하

였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각종 게임을 할 때마다 참가하는 어린이들과 봉사하고 돕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웃음꽃을 피며 즐기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통하여 함께 활동하며 시간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친구를 나누는 어린이와 학생들을 볼 때 밝아지고 더욱 성장할 주안예교회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모든 계획과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IC Kids 와 IC Youth의 지도자분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또한 함께 참가하고 도와주신 부모님들, 교우 여러분들의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 나형철 기자 |



■ 주안에 배달부

## 감사와 사랑의 편지, 빨간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주안예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성도들 간에 감사를 전하기 위하여 10월 한달간 '주안에 배달부'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 '감사우체통' 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되었던 행사가 다시 부활한 셈입니다.

'주안에 배달부' 는 그동안 감사했던 성도님에게 편지를 써서 교회에 비치된 빨간 우체통에 넣으면 주안에 배달부가 직접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마감일이 되기 전에 교회의 이곳저곳에서 편지를 쓰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교회에서 준비한 편지들이 동이 나는 모습을 보니, 감사를 전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람데오 한어청년부에서는 목장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뿐만 아니라 '마니또(비밀친구)' 를 준비했기로 뽑아 대상에게



편지를 써주고 잘 대해주는 등 감사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배달이 시작되어 편지를 받고 감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답장을 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선선해지는 가을날씨 속에 뜻깊은 행사가 진행되어 따뜻함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 계속해서 성도간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주안예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 교우동정

"아버님과 함께... 내 인생 최고의 효도"

**박한신 집사(벨리)**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온 목적은 내 인생 최고의 효도를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창원에 계신 아버님을 서울에서 만나 삼일동안 호텔에서 지내면서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드리며 이제 많이 연약해진 아버님을 뵈오면서 마음은 많이 아팠지만 약사인 저는 의료팀으로 아버님을 시켜로 참석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너무 감사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힐링캠프에서는 제자교회의 청년들이 많이 참석하였는데 내가 그 나이 때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부러움과 그들을 통해 많은 감동을 받은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자녀는 그 청년들처럼 교회 속에서, 말씀 속에서 양육하리라 결단했습니다.



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의 장로, 권사님들을 보면서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저 역시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지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저를 다듬어가는 성령 하나님을 느끼며 더욱 믿음의 성장을 원하는 제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절에 가시던 장모님 교회로"

**김중성, 연희 집사 (MP)**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포터즈의 섬김과 헌신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혔습니다. 목사님과 여러 서포터즈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매달 몇 번씩 가시던 절에 나가지 않고 주일날 교회에 나가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예피 성도(MP)**

ICY의 박예피 학생이 생애 처음으로 Job을 가졌습니다.

Westfield Santa Anita Mall food court에 있는 'bibio'에 이력서를 내고 다음 날 면접 후 합격하여 방과 후 part-time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독립심이 강한 박예피 학생은 본인이 바라던대로 일을 하는게 너무 재미있다고 합니다.



생애 처음 갖는 일이 박예피 학생의 미래의 꿈을 이루는데 좋은 경험과 발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유선 집사(MP)**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최혁 목사님의 좋은 말씀으로 많은 감동과 영적 힘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님이 떠난 후, 방향을 좀 했



으나 다시 이곳에서 목사님을 만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걸 생각만해도 즐겁습니다. 주안예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반겨주셔서 편안히 다닐 수 있어서 그 또한 감사한 맘입니다. 앞으로의 성령충만한 삶을 주안에 교회에서 함께하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3박4일 힐링캠프 서포터즈 봉사를 마치고 함께 떠난 여행길, 20여명의 성도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다.

■ 무료 독감예방 접종

지난 주일 10월 28일에 진행된 독감예방접종행사는 월그린에서 약사로 근무하시는 데이비드 강 님의 도움으로 소아를 포함 총 70명의 성도님들께서 접종받셨습니다.

MP 는 오는 11월 18일 LA county 질병예방국의 도움으로 11시에서 1시까지 거행됩니다. 어린이와 어른 150성도님 이상 접종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께서 독감접종으로 이번 겨울을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 “어리석고 나약한 나의 모습... 말씀 통해 눈물의 회개”

■ Seekers 한마디 1. 이름, 소속교회 / 2. 힐링캠프 참석 동기 / 3. 받은 은혜과 결심

**1. 김선희, 미정(속히 정하겠음^^)** 2. 주안예교회 김연희 집사님(언니), 김종성 집사님(형부)의 권유로 3.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 만든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앞으로 믿음을 확신하는 자로 신의 바람을 마음 속 가득 불어넣어서 잊지 않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1. 임유진, 천안 중앙교회** 2. 미국 언니의 권유로 3. 내 안의 중심이 늘 세상적인 것에 있던 내 삶이 이젠 주님 말씀 안에 중심이 된 삶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1. 강영애, 진주 삼일교회** 2. 한일은혜교회(미국)에 다니는 동생 덕분에 3. 교회에서 봉사를 핑계삼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을 주님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겠습니다.

**1. 김윤희, 분당 가나안교회** 2. 주안예교회 찬양팀의 이선민 집사(조카)의 소개로 3. 너무 많은 체험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1. 윤은희, 인천 하나비전교회** 2. 주안예교회 윤혜란 권사님(언니) 권유 신청 3. 나의 삶에서 전과 후가 분명하게 구분됨.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기쁨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1. 김형이, 지구촌 중앙교회** 2. 미국여행 때 최혁 목사님 말씀을 듣고 3. 하나님보다 세상락에 더 시간을 빼앗겼던 마음을 이제는 꼭 주의 일에 순종하기로 다짐했습니다(새벽예배 드리기).

**1. 원복진, 여주순복음교회** 2. 주안예교회 전정자 권사님의 권유로 3.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절제된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서포터즈들의 섬김의 자세, 모습에 은혜 받았습니다.

**1. 박제영, 수원 하나교회** 2. 주안예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동생의 권유와, 미국 출장길에 주안예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

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은 남편의 권유로 3. 38년동안 남이 만난 하나님만 전해들었습니다. 이번 힐링캠프로 저는 제 하나님을, 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1. 김지윤, 성남 복정 제자교회** 2. 임혜옥 목사님의 권유 3. 하나님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주안예교회 성도님, 목사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1. 조남은, 성남 드림교회** 2. 주안예교회에 다니는 딸(조혜리)이 아빠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해서 3. 많은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3박4일 목사님의 말씀에 큰 감동과 삶의 큰 변화를 느끼며 갑니다. 하나님 곁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기회였습니다.

**1. 손화현, 여수 중앙교회** 2. 힘든 상황에 회복을 위해 3. 원망과 오해를 풀게 되었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가운데 주님은 옆에 계셨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주님만 사랑하고 헌신하기로 기도하였습니다.



〈제1기 한국 힐링캠프 · 1면서 계속〉 한국과 일본, 미국 그리고 네팔에서도 참석하셔서 은혜의 단비에 흠뻑 젖어들며 믿음의 방향을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경험하시는 날이었다.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직접 나오셔서 봉사해주신 Supporters 의 헌신에 많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고백하시면서 받으셨던 은혜를 또다른 모습의 섬김으로 이어가시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으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조용히 수양관을 내려오는 발자욱마다 힐링을 경험한 자들의 기쁨이 묻어남을 느낄 수 있었다.



## “머리에 머물던 내 믿음, 이젠 가슴에 하나님을 품고...”

■ Seekers 한마디 1. 이름, 소속교회 / 2. 힐링캠프 참석 동기 / 3. 받은 은혜과 결심

**1. 장혜정, 성남 복정 제자교회** 2.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3. 다른 사람에게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저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녀와 사람들을 품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에 '지독하게' 하나님을 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강봉준, 여수 사랑교회** 2. 주안예교회 김현웅 집사(제 고민을 알고 있는 형님)의 권유 3.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겨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번 캠프 통해 왜 이런지 알게 되었으며, 내 마음을 온전히 나를 위해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께 향하도록 매일 말씀 묵상, 기도하려 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도 자신 있습니다.

**1. 강정아, 성남 복정 제자교회** 2. 임혜옥 목사님의 초대로 희망하고 꿈꾸게 되었습니다. 내 곁에 누가 계신지, 언제 계셨는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

이 제게 주신 게 무엇인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인지의 모든 의문과 이해와 주님의 권능이 바로 앎을 주셨습니다. 제 사랑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알게된 시간이었습니다.

**1. 장희자, 성남 복정 제자교회** 2. 임혜옥 목사님의 권유를 통해서 하나님 안의 평안과 치유함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하는지 알고 싶어서 3.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의 모습,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느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배우고 다짐하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1. 황순애, 미정** 2. 딸의 남자친구가 권유해서 3. 딸이 신학을 하는 친구와 결혼한다고 해서 걱정근심이 많았는데, 저희 가정을 하나님 자녀로 맞이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깨달음을 받았고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1. 정복희, 동진주교회** 2. 힐링캠프를 먼저 참석하셨던 가족의 권유로 3. 저 자신을 돌아보며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을 발견

하면서 회개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고 싶습니다.

**1. 강병복, 수원 하나교회** 2. 미국출장시 주안예교회 방문 3. 며칠동안 울고 갑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 홍미옥(성남 복정 제자교회)

나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없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며, 날마다 짓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임이 깨달아졌고,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니 영적으로 분별하여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말씀의 과녁에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한 말이 현재의 문제로 돌아움을 깨닫고, 자녀를 양육할 때 무심코 원망하는 말 대신 믿음, 축복의 말을 하여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갑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난의 경험이 앞으로 만나게 될 누군가에게 도움과 위로가 될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물질, 몸을 아끼지 않고 멀리 한국까지 오셔서 시차적응도 되지 않았을텐데 천사들처럼 우리를 영접해주시고 섬기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쁘게 갚으려는 귀한 마음을 가득히 느껴 매 식사때마다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왔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셔서도 온 성도와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데 쓰임 받는 주안예교회 되길 항상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1기 한국 힐링캠프 서포터즈 소감

##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쁨, 섬김의 은혜 가득

**전순권 권사(벨리)** 오랜만에 그림고 보고싶던 주안에 교인들을 만나니, 특히 MP 교인들까지 만나며 이제 하나된 모습에 감격과 은혜로 눈물 흘렸지만 더 감사했던 것은 낮과 밤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말씀에 은혜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안에교회를 통해 일하실 내일의 모습과 다음번 힐링캠프가 몹시 기대가 됩니다.

**황중훈 집사(MP)** 저는 매년 힐링캠프에서 쓰임받을 때마다 시간을 내야하는 어려움과 환경을 뛰어넘어야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었는데 이번은 특히 한국까지 가야하니 더 마음에 갈등이 많았지만 환경을 이기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찬양을 준비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나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는 부분도 있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시커스들을 통해 내가 받는 반사적인 은혜가 너무 크고 감동이 되어 찬양으로 외길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그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최다니엘 성도(한국)** 제가 미국에 살 때에 주안에교회를 섬겼는데 현재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힐링캠프에서는 찬양으로 섬기게 되어 감사 드립니다. 이번 시커로 오신 분중에 일본에 거주하시면서 40년만에 고국을 방문하신 분이 계시는데 많은 은혜를 받는 모습을보며 저 자신도 절제를 하느라 힘들었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많은 부분이 정리되었고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또한 언어로 나의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소의 집사(벨리)** 지난 주일날 나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라는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주일날 밤 비행기로 한국으로 갔습니다. 말씀이 너무 그림고 하나님께 너무 쓰임받고 싶어서였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저를 장로님이셨던 시아버님의 기도로 이제 힐링캠프를 통하여 변화 받고는 믿음생활이 얼마나 가치있고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힐링캠프에서는 김은영 집사님과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둘이는 힐링캠프에 서포터로 계속 참석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였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힐링캠프를 사랑하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Julie Yoon(미시건)** 지난 힐링캠프 때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저는 서포터로 남편은 시커스로 참석하였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로 회개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나는 자식을 잘 기르겠다는 일념으로 인하여 아들에게 수없이 상처를 주었던 일과 나의 감정으로 아들에게 화풀이 했던 것 등 아직까지 아들은 그 아픈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어 자식을 축복하지 못했던 엄마였지만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고 배웠으니 이제부터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 자녀를 축복기도하는 어머니로 살겠습니다. 다음 힐링캠프에는 한국에 사는 언니를 꼭 초대하고 싶어 지금부터 준비하며 기도 하겠습니다.



주안에 가족을 소개합니다!

은혜의 말씀에 감사의 눈물

작년 9월부터 집과 가까운 주안에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입구에서 반갑게 맞아주시는 주차 봉사요원들, 본당입구에서 환하게 웃으시는 권사님들, 찬양으로 영광드리는 분들과 땀흘려 헌신을 다해 말씀의 진실을 먹여주시는 최혁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잠자던 영혼이 소생됨을 느꼈습니다.

물댄 동산같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와 호흡이 살아계신 곳, 말씀 속에서 영혼의 평안을 주신 것은 설만한 맑은 시냇가였습니다.

말씀을 마칠 즈음이면 어김없이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살아 있는 이유를 알게 하심에도 감사하고, 연단이라는 불같은 시험을 거치게도 하시고, 주저 앉아 안주 하고 있던 영혼의 연약함을 다시 세우시려고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



유연화 권사(벨리)

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의 제사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했습니다. 내가 찾던 교회가 바로 이곳에 있었음을 또 감사 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소생 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 그의 성전에 영원히 거하기를 소원하며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숨은 일꾼/ 이재조 전도사(벨리)

사역에 은퇴가 없어요

30년간 사역하시고 은퇴하신 후에 주안에 교회에서 조용히 신양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과 건강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존재를 최대한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되기 위하여 매일의 삶속에 성령의 열매를 채우도록 노력하며, 성령님과 교통하는 생활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십니다.



사역하실 때는 맡은 일에 충실하다 보면 오히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능력 주시는 자의 도움과 선한 일을 도모하려는 노력으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게 되고, 지난날의 어려웠던 삶의 훈련을 통해서 얻은 경험으로 낮은 곳에서 성도간에

깨진 곳은 붙이고, 넘어진 자를 이해하고 위로하면서 보람을 느끼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넘치게 하신다고 고백하십니다.

주안에서 전도사님의 적극적인 헌신이 하나님의 교회에 힘이 되고,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으며, 죽도록 충성을 다짐하시는 전도사님과 가정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 김신실 기자 |

■ 사역국 탐방/ 찬양국(MP)

‘여호와를 찬양하라’ 온 맘 다해 하나님 임재 갈망

"너희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117:1)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집중하는 MP체플의 찬양국을 소개합니다.

찬양국에는 보컬팀으로 정강수 집사(국장), 박동준 형제(찬양인도), 박경숙 권사, 박제니 집사가 온 맘 다해 매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악기팀에는 정한경(M/D, 키보드), 김지혜 자매(세컨 키보드), 박익준 집사(드럼), 조성호 집사(베이스기타)가 열정을 다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안에 찬양팀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온 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매주 금요일(오후 6시 50분)과 주일(오전 7시 30분)에 일찍 모여 먼저 찬양연습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 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



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시편 150편의 말씀대로 MP체플의 찬양팀은 모든 성도님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대합니다.

| 박경숙 기자 |

■ 목장모임을 1년을 돌아보며...(MP채플)

## “어색함과 부담감이 이젠 기다림과 기대로”

**7목장(정화숙 집사)**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자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목장, 우리를 둘러싼 수 만개의 상처에 더욱 유연해질 수 있는 방법을 나누며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우리 목장 사랑합니다! 또 늘 감사합니다!

**5목장(이광영 집사/임혜신 권사)** 지금까지 부족한 저희에게 5목장을 섬길 수 있도록 항상 힘주시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목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열심으로 달려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5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5목장(황종훈/정소연 집사)** 15목장은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주를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가지 일들로 바쁘신 가운데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하나로 묶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서로 걱정해주고 챙겨주면서 각 가정의 신앙이 앞으로도 주안에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그런 목장이 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17목장(김영기 장로/김영희 권사)** 우리 주안 에교회가 2018년도에 새롭게 시작된 목장모임을 통해서 매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 기도하며 또,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원들과 나누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큰 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8목장(윤혜란 권사)** 언제나 부족함을 느꼈던 나에게 목자 라는 타이틀이 부담스러웠지만 순종하며 찬양과 기도로 준비하고 한 주, 한 달 시간이 가면서 목원들의 배려와 격려가 힘이 되었고 기쁨과 감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겐 믿음의 성장을 느낄 수 있었으며 목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듣고 기록했던 말씀들을 한 주 삶으로 적용하고 함께 나누는 순간들이 은혜였고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주시고 열심히 참석하시고 서로 마음 문을 여시고 사랑하며 교회와 서로를 위해 중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장 모임이 거듭될수록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는 믿음과 하나님과 주 안에서 형제자매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의 모임 되기를 소망합니다.

**10목장(박리차드/박제니 집사)** 목장 모임을 통해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 나누며 작은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 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더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감사합니다. 목원분과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4목장(전정자 권사)** 감사의 말을 앞두고 목장을 섬기며 사실 섬김을 받는 일이 더 많지만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 주셔서 배우게 함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며 감사하시는 어른들을 보면서 저도 함께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어 더욱 감사합니다 인생의 노년을 아름답게 섬기고 나누시는 목장 식구와 함께하면서 배우고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목장(김재동 집사/김정혜 권사)** 정말 다양하게 다른 모습, 다른 성격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복음 안에서 주의 일을 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문제를 안고 삶을 나눌 때도 주신 깊이 있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의 용기를 얻어 성경대로 살아가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들이 서로에게 큰 위로와 즐거움으로 함께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21목장(한동수/이레베카 집사)** 지난 1년간 목장 리더를 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생각과 믿음의 분량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삶으로 실천하려고 할 때 비록 실패도 있었고 감동적인 일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목원분들 모두가 서로 기도해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알게 하신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14목장(김경일 장로/김옥희 권사)** 올 해는 목장 모임이 정착하는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장모임에서 은혜와 도전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MP 14목장 목원들께서 부족한 저의 인도를 따라 주시고 열심히 참석하시고 서로 마음 문을 여시고 사랑하며 교회와 서로를 위해 중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장 모임이 거듭될수록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는 믿음과 하나님과 주 안에서 형제자매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의 모임 되기를 소망합니다.

**16목장(김중성/김연희 집사)** 매주 모여서 나눔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걱정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던 저희 부부에게 시편23편의 말씀을 주시며 푸른 초장에 풀을 먹이실 분이 우리가 아닌 참 목자이신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심으로 16목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 해의 계획들 속에 그 걸음을 인도하시며 크고 작은 목장의 기도 제목들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목장의 식구들이 함께 바라볼 때 기쁨의 시간들로 채워주시므로 모든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뉘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목장모임을 1년을 돌아보며...(밸리채플)

## “받은 은혜 함께 나누며 어느새 따뜻한 가족”

**2목장(강충규/강은숙 집사)** 목장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그 빈 부분을 채워 주셔서 한결 가볍게 목장을 이끌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목원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이자리에 설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4목장(오철호 집사/오병순 권사)** "올해 주님께서 저희가 구한 모든 기도에 응답해주셨어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감사가 있지만 그 중 감사한 것은 목원들이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준 것입니다. 목자로서 부족함이 많음에도 잘 따라와 주고 함께 협력해야 하는 일에 솔선수범 해준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목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7목장(김경배 집사)** “모임 초기 때만 해도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기억해 내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지금은 모임에서 나눌 말씀을 목상

**15목장(김재주 집사/김복순 권사)** 저희 목장은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진심과 정성으로써 섬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친부모님같이 섬기다보니 저희들도 행복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저희들 바램은 15목장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건강하게 백세까지 주안예교회 잘 섬기고 잘 지내셨으면 합니다. 15목장 목원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3목장(노재덕/현순 집사)** 가족모임같은 분위기의 우리 13목장 모임은 일단 대화가 시작되면 말을 끊기가 매우 힘들어진답니다. 왕수다쟁이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마음을 다 내려놓고 본인의 고민과 생각을 들려주시는 집사님과 장로님과의 대화로 1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리지요. 행복한 우리 13목장 가족 모임으로 매주 행복합니다.

**8목장(배진호 장로/배미경 권사)** 먼저 성실하신 목원들을 3가정이

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열심을 내어 믿음 생활 하시려는 모습들이 오히려 제가 나중된 자 같이 뒤쳐질까봐 따라서 열심을 내게 됩니다. 서로 같



해야 했던 시간이, 믿음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는 목원님들의 말씀을 보고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모임이 쌓일수록,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일상적 습관이 보다 더 익숙해질 것으로 격려드리며, 목원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9목장(최형선/최정화 집사)** 처음에는 주저하던 삶의 나눔이 시간이 거듭되면서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주저없이 고백하는 모습, 처음에는 굳은 표정 관망하는 모습이었던 분의 얼굴이 모임을 거듭할수록 환한 미소로 기꺼이 참여해 주시는 모습,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모습, 말씀과 신앙의 동반자로서의 위로와 격려가 있음에, 목자의 부족한 이모저모를 채워주는 한분 한분의 목원들이 함께하여 하나의 목장이 이루어지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6목장(전익성/전영옥 집사)** 저희 목장은 거의 다 원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로 구성된 목장입니다. 세상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늘 모범이 되시는 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고 늘 사랑으로 목장 모임에 참석하시고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매주 나눔의 시간 때마다 감사합니다. 저희 16목장 모든 목원 한분 한분을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영육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가 16 목장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동역하며 의로운 길을 가는 동안 힘을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목장(양태섭/양영 집사)** 전혀 신앙이 없으신 분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3목장(홍영표 집사/홍영주 권사)** 처음 해보는 나눔은 목원 모두에게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시행 초기에 위기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그 위기는 극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삶을 연습해보는 나눔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손잡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커플(문병훈/문정은 집사)** 한 해 동안 영커플과 함께 하면서 청년부에서 함께 있던 형제, 자매들이 이제는 가정을 꾸리고 그 가운데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커플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목장 모임을 인도하면서 많이 부족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모임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준 영커플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목장모임을 1년을 돌아보며...

**벨리 14목장(김승환 집사/김현숙 권사)**

목자교육을 받으러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LA채플, MP채플에 다니던 때가 잊지 않게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저에게 2018년은, 신앙적으로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은 소중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처음에 목자로 임명 받았을 때, 크게 혼란스러웠고 많이 망설였습니다. "내가 목자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직 양, 그것도 어리고 철딱서니 없는 양인데!" 또한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대부분의 일하는 시간동안 혼자서 고객들의 phone call을 받아 이곳 저곳 돌아다니며 모바일 locksmith business를 하는 아주 바쁜 사람인데!". 그 림에도 불구하고, 와이프 권사님도 도와 주겠다고 해 보라고



하고, 주변에서 응원도 해 주시고. 그리고 웬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 목자의 사명을 한 번 감당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성경말씀에 대한 기본 소양이 많이 부족한 저를 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고 싶어 서둘러 18주 간의 주안에 말씀 성경 통독 과정도 신청하여 마치게 되었고, 그동안 미루었던 힐링캠프(3박4일)도 다녀 왔습니다.

매주 목장모임을 준비하는 일은 평소 해보지 않았던 일이라서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주일설교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면 설교요약을 하기가 쉽지 않기에 설교말씀에도 늘 집중을 해서 memo하며 듣는 좋은 습관이 생겼고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 또한 배가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매주 목장모임에서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사랑하는 목원님들을 통해 성령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계속 연중되고 있음을 느꼈고 힘이 났습니다. 목장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좋은 목원님들을 만나게 해 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 기행문

안개속 지리산 한쪽의 동양화 속으로...



소백산맥에 위치한 지리산은 경상남도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과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남도 구례군에 걸쳐있는 산으로 1967년에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이다.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는 날 아침 일찍 우리는 전남 구례를 향하여 출발을 했다. 남해안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안개에 적당히 덮인 차창밖 풍경을 둘러보니 마치 남농화백의 동양화의 한장면 속으로 빨려 들어온 듯한 황홀함을 맛보게 해주었다. 중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가 보았던 구례 화엄사를 옛 추억을 되새기며 찾아갔건만 갑자기 꺾어진 빗줄기 때문에 산사로 들어가는 멋들어진 단풍길을 걸어보질 못하고 돌아서야 했던 게 못내 아쉬웠다. 방향을 바꾸어서 지리산의 3대 봉우리중의 하나이면서 가장 쉽게 지리산의 장대한 능선을 감상할 수 있는 유일한 봉우리인 노고단으로 향했다.

국립공원중에서는 유일하게 자동차로 봉우리까지 오를수 있게 길이 잘 닦여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 산이 지리산이라고 한다

노고단 봉우리로 오르면서 사방을 물들인 단풍의 향연을 마주하니 감탄사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대장관이였다. 앞뒤 양옆으로 빨강과 노랑이 경경이라도 하듯이 화려함을 뽐내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곳 “천국”을 연상케 하면서 막연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구불구불한 길을 돌고돌아서 도착한 노고단 정상 역시 빗줄기와 함께 포근히

감싸고 있는 안개로 인해서 장대한 지리산의 능선들은 감상할 수 없었지만 제 2의 목적지인 뱀사골이 기다리고 있기에 섭섭치 않은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었다.

뱀사골로 향하는 산길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드라이브 코스로 지정되어있음이 무안하지 않을 만큼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었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양 옆을 병풍처럼 장식하고 그 가운데로 박자를 맞추어서 계곡이 흐르는 곳, 드디어 뱀사골에 이르고 보니 노고단 정상에서의 허무하게돌렸던 발걸음을 보상이라도 받는듯 싶었다.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광경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비를 맞아가며 몇군데의 촬영을 마친 후에 구례와 반대방향인 남원쪽을 향해서 내려오니 추어탕의 고장 남원에 이르렀다. 쌀쌀한 기온과 적당히 출출한 배를, 따뜻하고 구수한 추어탕으로 채우고 나니 바로 옆에 위치한 광한루가 한눈에 들어왔다.

어느덧 나른해지기 시작한 체력은 보슬 보슬 내리는 비를 핑계삼아 차를타고 한바퀴 돌아보는 거로 대신하면서 남원을 출발하게 만들었다.

확장시절에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을 찾아서 더위를 식히며 추억을 쌓았던, 그래서 우리에게 늘 여름의 대명사로 떠올랐던 곳 지리산... 그 지리산의 단풍은 또다른 계절인 가을의 대명사로 새로운 기억의 한권을 자리하며 나를 유혹할듯 싶다.

| 오희경 기자 |

■ 한국 방문 후기

지하철에서 만난 젊은이

하나님의 사역을 다 끝마치고 감사기도로 한국에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 후 나의 교회와 집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다. 힐링캠프를 통하여 믿음에 씨앗을 잘 심어놓았고 또 뿌리가 잘 내리도록 기도도 해놓았는데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셨다.

쉬지않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내 마음을 한국에 남겨놓고 떠나도록 하시는 주님의 인도함이 아니던가? 한국에서 떠날 무렵 택시기사님들의

파업이 있었다는 뉴스를 듣고 시간의 차질이 생길까 봐 알지도 못하는 지하철을 타고 인천공항을 가기위해 서울역으로 갔다. 표지판이 잘 되어있었지만 나에게는 너무도 생소하고 알 수 없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어떤 분에게 길을 물어보니

몰라요라는 매몰찬 대답에 무안만 당한 기분이 들어 혼자 의자에 멍하니 앉

아있다가 다시 용기를 내어 학생같은 남자에게 죄송한데요 길 좀 여쭙어볼까요 하고 말을 시키니 잘 가르쳐주었지만 나는 찾아갈 재주가 없는 것 같다고 솔직히 대답했다. 그 학생은 입구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하며 앞장을 섰고 같이 걸어가는 데 지하도 뚝장사할머니가 계시기에 뚝도 한판씩 사서 나누어가졌다.

어리버리한 나의 모습을 눈치챈 학생은 한국에 안사시는 것 같다고 하기에 교회에 힐링캠프 이야기랑 복음을 전하였더니 저도 교회에 다녀요 하기에 얼마나 반갑던지 너무 고마웠다. 인천에 산다며 다른 기차를 타려 했지만 권사님이랑 같은 기차 타고가다가 저는 계양에서 내려도 틀림없이 인천공항까지 안전하게 가실거라며 우리는 나란히 앉아 인천으로 향했다.



"젊은이는 장래희망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아시스에서 물을 떠마신 기분 이랄까? 너무 놀라 내년 힐링캠프 때 초대할테니 꼭 오라했더니 돌아오는 2월이면 장교로 33개월 군입대합니다 라는 대답에 내가 그냥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서 그럼 부대로 찾아가 더 높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힐링캠프에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하며 믿음에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릴 때가 된다며 권사님 기도제목 주세요 기도할게요 하면서 사 진을함께 찍고싶다하여 사진도 찍고 기도제목도 공유하고 참 행복하고 복된 만남을 허락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학생의 전부는 이름은 전의진, 24세, 인하공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며 CCC에 리더로 얼마전 외국에서 온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을 연결하여 터키제 난지역에 다녀왔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지만 참 오래전부터 같은 길을 걸었던 믿음의 동역자처럼 느껴지고 정이 가고 그랬다.

미국에 돌아온 며칠 후 카톡으로 사진이 도착하면서 감사한 하루였다는 메모도 들어있어 나 역시 카톡을 열고 기도제목을 주고 받으며 연락을 하고있다. 이 만남으로 가장 감사한 것은 아직도 한국에 믿음의 청년들이,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어 소망이 있다는 것, 다음세대에는 더 왕성하고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에 이루어지는 꿈을 꾸어본다. 이제 우리에게 는 우리가 뛰며, 달리며 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차세대 리더들을 키워나가는 일이 너무도 중요하다.

| 임용자 기자 |

■ 주안에 말씀 간증

"말씀 읽기를 최우선 순위에"



신인숙 집사(벨리)

제가 일년의 휴 직기간동안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할 때 가장 걸렸던 것이 금요일야 예배였습니다. 5일간의 치열한 싸움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제 삶의 근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삶의 근원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는 제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되었을 때 목사님께서 주안에 말씀을 권유하셨고 제 속에는 한국에서도 못했는데 미국에서 통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많았지만 제 안에 늘 자리잡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성경통독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컸기에 주안에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안에 말씀을 시작하니 금요일마다 무슨 행사도 많고 이벤트도 많은지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니 그런 일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안에 말씀을 마치면서 돌아보니 성경 통독을 의무감으로 급하게 성경을 읽을 때가 더 많아서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매주일 강단 메시지를 통해 제가 읽었던 말씀이 본문으로 나오면 좀더 집중하게 되었고 제가 읽었을 때 깨닫지 못한 것을 목사님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순간 제가 주일 메시지로 일주일의 삶을 살아내려 노력하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각종 문제와 사건 속에서 반응하기보다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몸부림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입니다.

■ 교우비즈니스 안내

SEONG UN JOE

VIIA TRAFFIC SCHOOL 비자운전학교

213-739-8181

vijasj@gmail.com

4157 W. 5th ST. #204  
LOS ANGELES CA 90020

JINNYY NOH PIANO STUDIO

노현순 피아노 개인 지도  
(818) 438-9359/ jinnynoh1@gmail.com

Member of MTAC(Music Teacher Association of California) & SYMF(Southern California Youth Music Festival)

Master Car Auto Body Shop

Danny Lee (이원근)

5801 S. Central Ave #H  
Los Angeles, CA 90011

wonkni@gmail.com

(213) 703-0777

보험수리, 리스리턴,  
렌트카, 토잉 서비스





## 사회보장제도 궁금증 물어보세요(7)

지난 시간에 이어서 Calworks 혜택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이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현금 보조 프로그램으로 아직 SSI를 받기에는 나이가(65세) 안되는 저소득층 가정이 신청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 혜택을 받으시게 되면 현금 보조 이외에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Cal-fresh (과거 Food Stamps) 와 Medical 혜택이 같이 제공되었습니다.

그외에도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이 있는데 대강 말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료 자녀 Day Care: Calworks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직업 훈련을 할 경우 무료 자녀 Day Care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Caregiver 가 있을 경우 그 사람을 지정하면 지정하는 분에게 직접 급여가 지불됩니다. 2) 만약 현재 직업이 없을 경우 무료 직업 훈련 혹은 그를 위한 학교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학비를 전액 지불하고 그에 따르는 여러 비용, 즉 교통비나 그 훈련을 위한 복장, 신발 등을 위한 비용이 지불됩니다. 3) 시민 아파트나 저소득 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지며 만약 여러가지 이유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강제 퇴거 되었을 경우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호텔 비용이 지불되고 이후 거주주택이 결정되었을 경우 Security deposit과 마지막 달 월세 그리고 이사 비용과 기본 가전 제품 (냉장고나 stove)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 Calworks

<혜택 종류와 자격 요건>

노재덕 집사  
(SSA 근무)



신청자가 가정 폭력 피해자인 경우 무료 법률 서비스와 이민 관련 서비스, 그리고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현금보조 혜택은 성인은 48개월간 그리고 자녀는 18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받은 혜택에 대하여 환불을 해야 한다거나 자녀가 이후 이것을 갚아야 한다는 말들은 사실 무근의 소문일 뿐입니다.

이 Calworks 혜택을 받기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18세의 자녀로써 현재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중인 경우 2) 현재 실직 상태이거나 취업 상태지만 수입이 4인 가족 기준으로 매달 \$1,800 이하인 경우 3)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은행 계좌 잔고나 자동차의 가치가 합산하여 \$2,000 이하일 경우 4) 그의 현금화할 수 있는 주식이나 보험 혹은 투자 상품이 없을 경우 이 혜택을 신청하실 분들 중에 편부모로서 이전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으실 경우 그 양육비 지불이 중단될 수 있음으로 이 경우는 여러 상황을 잘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후 케이스는 몇 주 안에 타이가 되며 승인이 났을 경우 일종의 ATM 카드 같은 debit card(EBT 카드라고 부릅니다. Electronic Benefit Transfer 의 약자)가 주어지게 되는데 매달 결정된 현금 액수가 이 카드로 지급되며 어느 은행에서나 원하는 액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00  
MP채플/ 1부 오전 9:30, 2부 11:30

영성  
집회

수요영성집회/ 저녁 7:45 밸리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MP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MP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수 저녁 7:45  
MP채플/ 주일 오전 11:30, 금 저녁 7:45

### ICY중고등부&영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후 1:30, MP채플/ 주일 오전 9:30

### Coram Deo(한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MP채플/ 주일 오전 11:30

###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 MP채플 MP Chapel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 “주안에” 2018년 11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 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김신실, 나형철, 박경숙, 박창신, 박희정, 이광영, 이예스더, 암용자, 조성은, 조용태(기자)

안동윤, 양영, 브라이언 조, 남성우, 정인섭(사진) | 편집디자인: 김운영